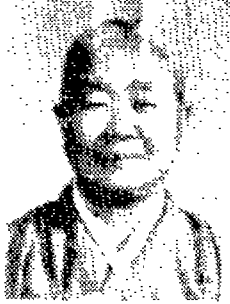


50주년을 맞는

나의 회고



한 신 광

<창립 당시 조선간호부회 서기>

나는 52년전에 간호원이 된 사람으로 50년의 지난날을 회고하여 보니 간개가 무량하다. 50년이던 반세기가 되니 그동안 별천년 것은 이루어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간호제도 천양지자로 발전해 왔다. 옛날에는 서양 병원에서만 간호원이라 불렀고 중독부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서는 간호부라고 불렀다.

간호부를 간호원으로 산파를 조산원으로 그 명칭이 법률상으로 개정된 해는 1946년이다.

간호부면 병자 내소번이나 발아내고 의사 실무름이나 해주는 천업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사회에서 편시와 천대를 받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도 그때는 권리나 지위를 찾으려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다. 나는 등대문부인병원 간호원양성소에서 공부했다. 우리 병원은 주부 부인병원이기 때문에 산모가 많았다. 하루 평균 10여명씩 애기를 낳았다. 산도와 애기가 늘 수십명씩 있어서 일은 굉장히 많았다. 그때도 간호원은 수간호원 한 사람, 3년생 3명, 2년생 4명, 1년생 다섯명씩 학습 간호원 10명 불과 20여명 간호원이 주야로 번갈아 돌며 일을 했다. 그래서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했다. 그때는 자유라고는 없었고 한달에 한번 외출을 허락했으나 외출시간은 두시간 만에 돌아

와야 했었다. 방학때가 되어도 학과만 방학이지 일하는 시간은 매일 받으로 해야 했었다.

옛날에 밤번 보던 생각이 난다. 겨울이 어찌 그리 춥던지 반이던 영하 20도가 내려갈 때가 많았다. 상급생 간호원과 들어서 술뚜트라이 누빈 것을 입고 발을 새웠다. 밤 10시쯤에 국밥을 끓여서 산도들을 데워 놓고 밤 간호원 틀어서 미역국에 흰밥을 말아 먹으면 어찌 그리 맛이 있던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내가 1학년때인 52年前 서울에 호열자가 들어와서 한참 사람이 죽어 갔다. 그때는 전열병원도 많지 않아서 보통병원에서도 전열환자를 받았다. 한번은 칠팔월의 장마철트비가 억수토 쏟아 지던 날. 땀방(사람죽는 방)에 사람이 죽었는데 또 다른 환자가 숨을 모으고 있으므로 별방으로 옮겨야 했었다. 의사가 걸진을 환위 사당자는 시체실트 옮기고 위급환자는 팔랑오드 옮기라는 명령에 그때 3학년인 김현미 언니하고 나는 땀 풀이시(내 나이 19세) 그 사망한 시체들 시체실트 옮겼다. 그때는 의사의 명령이던 절대 부종하는 것이 그때 간호원의 실정이었다. 옛날은 간호원 생활이 참 어렵기 때문에 처음 양성소에 입학할 때는 10여명이 입학할 해도 졸업때까지 참고 전되는 사람은 한

두명이나 오륙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간호원 양성소(3년)를 졸업한 뒤 태화 여자관에서 서양인 미스 로신복씨와 같이 아동보건을 창설. 점점이 가정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하나 둘 모으고 자모들을 드 아선 공중위생과 육아법. 우유 만드는 법. 보자보건법등을 가르치며 한달에 한번씩 어린이 제중을 달아보고 약한 아이들은 약을 무료로 주면서 건강법을 가르치며 1년에 한번씩 우량아 표창을 해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에 처음으로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 후원을 얻어 태화여자관 아동보건소에서 우량아 표창식을 거행하였다. 신문에 내고 광고도 해서 많은 상품과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다. 제 1회 표창 받은 아이가 5명인데 그중 한 아이가 새문안 교회 자재명목사님의 딸아들이었던 것이 생각난다. 그 아이가 지금은 52,3세가 되었을 것이다.

50년 전에는 간호원이 한 노부자로 취급을 받아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현재는 우리 간호원도 기술자의 일원으로 대우를 받게 되었고 자유와 권리도 보장 받게 되었으며 학문으로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나게 되었으니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위기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 무한히 흐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된다.

그러나 선배로서 후배 간호원들에게 부탁할 말은 우리 간호원이 학사 석사 박사가 되어도 간호원은 간호원인 것. 글자 그대로 환자를 돌아보고 보호해줘야 할 천적인 것이다.

나이팅게일의 후계자로 박애정신과 간호원에 대한 정신을 절대로 이 말할 수는 없다. 많은 환자의 생명은 의약에민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의 사랑과 봉사와 희생정신에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50주년을 맞는

나의 회고

김 정 선

〈보회 경복지부장
대구등산기독교병원간호과장〉

인간의 생리적 기능은 나이 많을수록 점차 쇠퇴해지나 단체의 기능은 지장이 없는 한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더 강해지고 날로 사업이 번창해진다. 이러한 원칙에서 우리협회는 50주년을 지내는 동안 난관인 통착한 때도 많았으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날로 발전하여 간호제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이것은 오로지 선배들의 백절불굴의 참된 간호정신을 가지고 분투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은 그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나는 조장기 회원중의 한 사람으로 지금 50년동안 우리 협회가 자라나온 것을 다시한번 돌아보며 벗가지 사선들을 기뻐하고자 한다.

1. 내가 처음 회원이 되었을때,

1927년 3월에 졸업한 후 몇달 안되어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간호원장이신 Miss Edna Lawrence 집에서 5월 12일에 개최하는 조선간호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등록을 했다. 회원들은 여러 선교병원에서 온 미국인파 한국인들의 대표들인데 회원수는 30~40명정도이었고 대표들이 온 지방은 선천, 평양, 회령, 선진, 함흥, 원산, 해주, 인천, 대

구, 부산, 진주지방이었다. 처음으로 많은 서양인들과 같이 행동하며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하게 되니 신기하게 생각되었다.

본회의 사업은 여러부류 나누어 하였는데 출판위원, 과정제정위원, 세칙위원, 교과서제정위원, 재정위원, 치하위원회 등이 있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은 사무처리, 특별강연이 있었고 대표들의 보고와 각분과위원의 보고가 있었고 현재 보다 특이한 점은 각위원회에서 사업보



의가 있었다 회의가 끝난후에는 창경원이나 비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 때도 있었다.

2. 나라없는 설음

Miss Elijabeth J. Shepping은 계속적으로 회장에 피선되어 일을 많이 하았는데 특히 국제간호협회에 우리나라가 회원국이 되고자 수고를 많이 해오시던중 1929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될 국제간호협회 총회시에는 꼭 가입을 할려고 외국에 저명한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리고 Miss Shepping 씨, 이효경, 이금전씨가 대표로 결정되어 그해 6월경에 한국을 떠나셨다.

당시 일본간호원들의 짝은 우리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다.

우리가 국제간호협회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앞질러 가서 우리의 가입을 방해했으므로 결국은 우리는 자격이 있으나 나라가 없어 못하고 일본은 나

라는 있으나 자격이 없어 못했다.

마음조리덕 기쁜 소식을 기다리던 회원들은 나라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비애의 눈물을 글썽할 수 없었다.

3. 잊을 수 없는 날들

가. 간호협회서류를 인제받다.

Miss, Edna Lawrence께서 귀국하시기 며칠전에 간호협회의 모든 서류를 받아 잘 보관하라는 부탁을 받을때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한심한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나? 원치 않는 이별은 참으로 애석했다 Miss Lawrence는 불행히도 귀국 도중에 풍산강과 접촉이 있다는 혐의로 경찰에 인수되어 다시 서울에 와서 1주일 고생하시다 귀국하셨다. 인제받은 서류와 책들은 내가 일하던 서울에 태화기독교사회관기숙사지하실장에 두었다.

나. 질식사태에 있던 간호협회

태화기독교 사회관은 일본 정권 명령에 의해 건물을 내물게 되어하던사업은 중단되고 나는 셋집을 얻어 나오게 되었다. 이때는 집회를 일절 못하게 되고 우리의 성은 일본인의 성으로 고치는데 강요당했고 우리말로 쓴 책은 사용못하게 되어 보관해 있던 책들은 버려야 할지? 뭐야 할지?. 셋방살이방에 둘라니 둘 곳이 없어 혼 곤란이었다. 생각다 못해 보관했던 책들은 간호사, 간호이론, 보건간호, 건강과 위생 몇권씩만 두고 그의 책들은 휴지로 버리는 수 밖에 없었다. 집을 때앗기고 나오던날 책을 버리던 날을 생각하니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4. 희망의 새아침

친구중 한사람이 미친듯이 말다와서, 일본이 항복했다. 이제 독립이다. 하는말을 듣고 나도 너무 기뻐 정신없이 소리를 질렀다. 이런 기쁨은 내 생전 처음이었다. 부자

생각해보면 반백년의 연륜을 쌓은 간호계는 이제 또 앞으로의 시대적사명이란 무거운 과업을 지고 새로운 발돋움의 하게 되었다.

우리말로 10년이면 장산이 변한다고 한다. 이말이 실감나는 것을 우리 50년간호사에서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조창가 10년은 우리나라에서 서양 의학의 도입과 아울러 간호원이 처음 걸음마 하던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다음 10년은 일제치하에서 연륜어린 간호계가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거리는 때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10년은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아울러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간호계를 일으킨 개척자적인 입장에서 간호원의 사명감을 십이분 발휘하며 아무것도없는 현실을 극복하면서 지냈다고 본다. 그후 6·25사변을 겪고 전쟁의 폐허에서 내 나라 복구를 위해 힘써던 시절이었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머등 치며 전쟁의 쓰라림에서 헤어나려는 노력이 눈물겨웠다. 근래 10년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발전하며 내

50주년을 맞는

나의 회고

류 순 한

<대한보건의간호원회 회장>

나라 내민족의 간호는 물론 독일, 미국, 구라파 등 오대양 육대주로 우리 간호계의 힘을 나타내었다. 또 우리의 조그마한 힘은 모이고 모여서 간호협회회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반백년을 계획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쌓은 기반을 주축으로 보다 빨리 보다 탄탄히 쌓아 나가야겠다. 앞으로 50주년을 계획할 때 월금과 이자가 복리트 붙어날때 백만원이란 주축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지는 것처럼 손과 손이 모이고 힘과 힘이 모일 때 큰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바라건대 우리 선우들은 과거를 뉘엿뉘엿하고 거울삼아 보다 힘차고 족함이 보다 알차게 뉘어나가야 하겠다.

유에 매였던 우리가 자유분 창조 그리던 태극기를 볼 것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며칠 지나 보관해 있던 간호협회서류들을 보게되에 싸가지고 홍신영선생님이 계신 세부란스병원을 찾아가 앞으로 간호협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강 이야기하고 모든 서류들을 홍 선생님께 맡겼다. 이때부터 슬픔에 잠겨 시름없이 잠자던 우리협회가 5년만에 해방의 새아침 해가 떠오름에 응하여 머리를 들고 일어나 생기를 얻게 되었다. 얼마나 잠깨 무방한지 말할 수 없었다.

5. 우연히 협회상부가 되었다.

1935년부터 Miss Elena T. Ros enberger씨와 같이 보건의업을 하시다가 2차대전으로 귀국하시고 사업도 중단될때 개인이 인수하여 계속하는중 해방후 비군정간호고문관 EAP. Luka의 권유로 서울시 보건과에서 시무하다가 사직할 당시 마침 간호협회 회장인 손목순선생으로부터 협회로 와 달라는 요청이 있어 1948년 10월부터 일하다가 50년 2월에 비국으로 가게 되었다. 협회서 시무중 인상깊었던 것은 사무실인데 방이 없어 회장님이 근무하

는 옆에서 사무를 보았다. 협회 사무실이 시급히 필요함으로 적산집을 빌려 불려고 등본서주하며 수개월 에론 냐이 썼으나 허사였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협회가 어느 여성계에서도 볼 수 없는 훌륭한 사업체가 된 것을 볼 때 우리스스로가 마음껏 찬양하고 자랑할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오로지 임회중진들과 실무진과 회원들의 열성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며 우리 백의의 용사들은 앞날에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단결하여 참된 간호정신을 빛내기 바란다.

50주년을 맞는

나의 회고

유성순
국립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대한간호협회 50주년을 맞아 회고담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 벅차움을 느껴할 수 있다. 먼저 간호원으로서의 부족하고 남겨놓을 만한 공적도 없는 나에게 50주년 기념으로 상례까지 한 대한간호협회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사회복지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지켜 볼우한 소녀들의 손발이 되며 지역사회와 질병예방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 50주년은 많은 고난과 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도 그 어떤 사명감에서 택한 사업이기에 투철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으로써 오늘의 교육수준과 회원의 복지를 위한 방대한 사업체들이룩한데는 더더욱여 진다.

도리켜 보면 사회가 인정도 환영도 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동등한 목적을 가지고 환자를 위하는 의사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늘근하게 자신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들의 사업은 너무나 고귀할이었던 것이다. 나이팅게일 합창단원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은, 내가 처음 간호원양성소에 입학하였을때 교실에서 약간의 준비실습을 끝내고는 곧장 병실에서 직접 실습하던때에 내가 처음 들어갔던 병실은 7명의 남자 환자가있는 3층병실이었다. 환자들의 자리와 탁자를 정돈하러 들어간 나는 환자가 무서워서 출입문만 붙잡고 있다가 상급

생에게 주의를 들던 일등이 필립이 돌아가듯 머리를 스쳐갔다. 오늘의 대한 간호협회와 간호학생회의 발전을 보고 대견하다고 하기에 앞서 자부심 마저 가져 보았다. 지나간 50년은 교육에 힘써 왔다고 보아도 파연이 아니고 보면 인제는 든든한 교육의 피전에서 자란 우리회원들의 복지와 사회진출에 광범위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는 우리회원들의 손을 요구하는 분야가 많은 반면에 저해시키는 요소도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힘을 기르고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고식적인 사고방식은 떠나야 할 것이다. 타인이 가련하게 본다고 우리자신마저 느껴서는 약할 것이니 적어도 우리는 사명감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일반사회에서 생각하는 간호원은 불란속에서 억눌린 여성의 직언인줄 아는가운데도 나는 간호원이란 자부심과 어느지업 여성들보다 더 뽕뽕하게 활동하였으며 실전으로서 우리들의 사업을 전하였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20여년 동안 부족한 때가 많은 내가 관리들의 이해부족으로 부닥치는 회원들의 대우문제와 간호교육문제를 제봉하고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하여 통분서주 하였으

며 때로는 분개하여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희망에 찬 가슴을 안고 밤잠을 못이부던 일등이 새삼 벅차움을 금할 수 없다.

국가가 요구하는 우리들의 활동분야는 많으나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이때 우리들이 택할길을 올바르게 알고 해외진출도 막랄지한 일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통계숫자에 급급하는 부선에 맹목적으로 따를것이 못됨도 알아야겠다.

국제간호협회의 회원국인 우리도 우리나라대로 주체성있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간호교육과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과거에 활동분야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차원이 높은곳에 목적을 두고 몇몇한 자세로 임할 것을 희망하면서 훌륭한 50주년을 창성한 기성세대의 두지가 지주가 되고 패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은 우리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간호법을 연구할 것을 기대한다. 과거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누가 무어라 하여도 슬피하지 말고 우리자신부터 우리는 최상의 직업여성이며 귀한 생명을 보호하는 고귀함을 간직하여 굳건한 자세로서 사회가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탐구하여 참된 인도주의적인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여 본다.

회고담을 쓸 기회를 준데 대해 다시 감사하면서.....